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Agenda and Paradox of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
| II. 도서관 장서개발의 스펙트럼과 지형 | 1. 고전적 정론의 현실적 한계 |
| 1. 아날로그 장서개발의 스펙트럼 | 2. 디지털 오디세이의 역설과 신화 |
| 2. 디지털 장서개발의 지형과 변화 | 3. 미래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 |
| |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모형은 역사성과 체계성을 겸비한 장서에서 발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서개발은 모든 공공도서관이 가장 중시해야 할 전문직 업무이다. 이에 국내외 공공도서관계가 금과옥조로 삼는 고전적 장서개발의 정론이 직면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오디세이의 신화를 논급한 다음에 미래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장서개발, 장서관리, 공공도서관, 아날로그 장서, 디지털 장서

ABSTRACT

The social identities and role models of all public libraries originate from the historic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analog collections and the high-quality digital contents. Therefore,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should be treated the most important professional task. Based on these prerequisites, this paper analyzed the classical agendas of analog collection development and paradoxes of digital odyssey, and suggested the future policies and strategies of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in Korea.

Keywords: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Public Library, Analog Collection, Digital Collection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접수일: 2009년 2월 9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19세기 중반 이래로 인구에 회자되는 ‘장서’는 용어 자체에 충실하면 도서관이 수집·보존하는 도서의 집합이다. 여기에 지식정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확대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보존하는 모든 지식정보 매체의 집성체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에는 당대의 사조와 지적 고민, 사회변혁의 단초와 궤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장서의 현실적 내지 직접적 함의는 당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인 동시에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보증하는 실물자료의 합집합이다. 다시 말해 모든 도서관과 사서직은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며, 그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자료입수에 있기 때문에 장서가 충실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인식도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특히 공공도서관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식정보의 요람, 문화활동의 거점, 평생학습의 산실로 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문화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판별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정당화하는 요체가 장서라는 사실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환언하면 장서의 중요성을 격하시키거나 충실하게 구축하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수집·제공·보존하는 조직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세기 반에 걸쳐 공공도서관계가 금과옥조로 삼아 왔던 장서개발의 고전적 정론이 직면하는 현실적 한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새롭게 부상한 디지털 오디세이의 역설과 신화를 논급한 다음에 미래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장서개발의 스펙트럼과 지형변화에 주목하여 정론과 역설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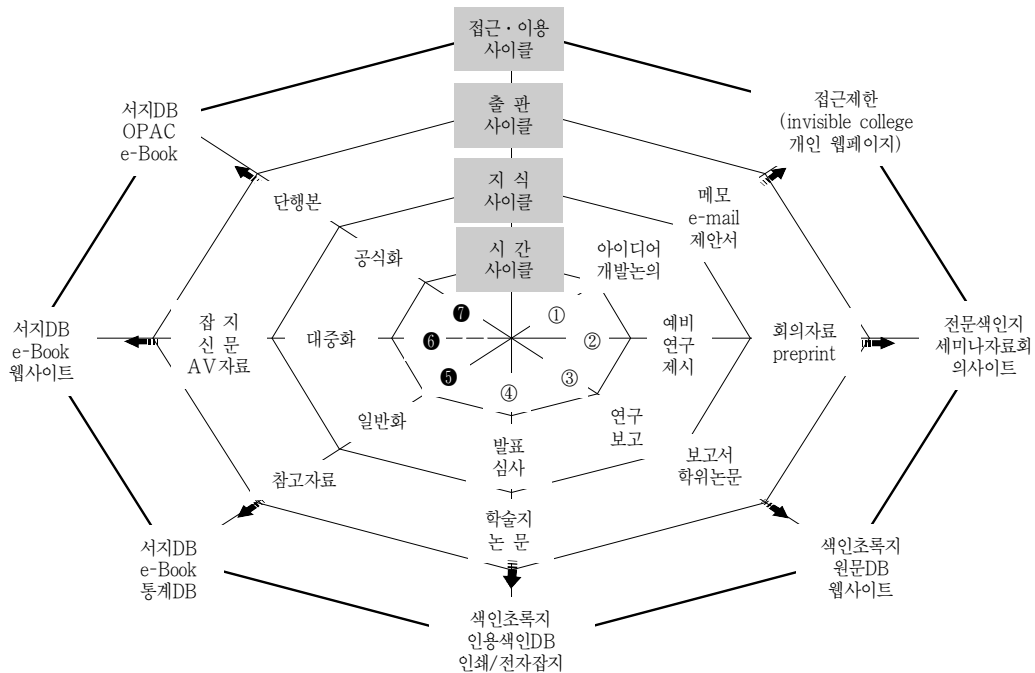
II. 도서관 장서개발의 스펙트럼과 지형

1. 아날로그 장서개발의 스펙트럼

인류의 지식정보 유통사를 매체별로 압축하면 소량의 필사시대가 15세기 후반부터 대량의 인쇄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각국에서 도서중심의 정보유통이 본격화되었고, 17세기 중반에는 잡지가 새로운 정보매체로 출현하여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마이크로자료가, 1970년대 후반에는 CD-ROM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디지털 정보자원이 부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궤적을 그리면서 누적된 지식정보의 스펙트럼은 매우 복잡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의 생산(출판)에서 유통(접근·이용)까지의 스펙트럼을 시계열성 사이클에 주목하여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¹⁾ 이를 다시 도서관 장서개발로 한정하면 <그림 2>와 같이 실물자료 중심의 아날로그 스펙트럼과 디지털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양자는 분리·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지식정보의 출판 및 유통의 스펙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학술지 및 웹DB의 개발을 중시하는 학술도서관과 달리, 도서 및 대중잡지 중심의 아날로그 장서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E-book 등의 디지털 자료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이 출판사이클에 위치하는 아날로그 자료, 즉 인쇄자료 중의 도서(단행본, 참고도서, 회색문헌)와 비도서(연속간행물, 회의자료, 학위논문), 비인쇄자료 중의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E-book 등의 장서개발과 보존활동에 소홀할 경우, 지식정보 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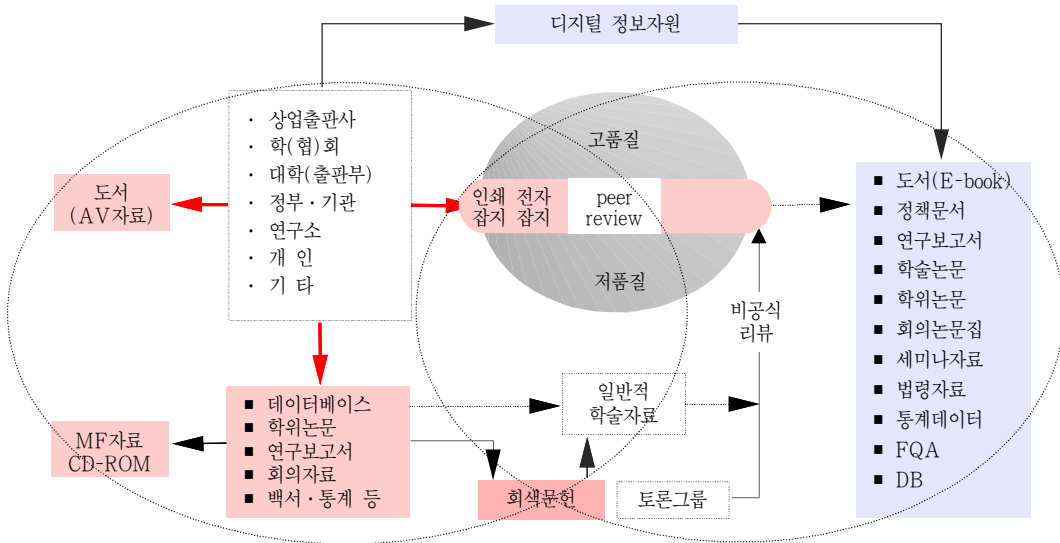
2. 디지털 장서개발의 지형과 변화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지형에는 <그림 2>의 우측 점선 내에 존재하는 모든

1) 윤희윤, 장서관리론(대구 : 태일사, 2007), p.22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유형의 자료가 포함된다.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대상은 라이선스 확보형 E-book과 전자잡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회색문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변종이 다양하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웹정보자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도서관 장서개발 대상의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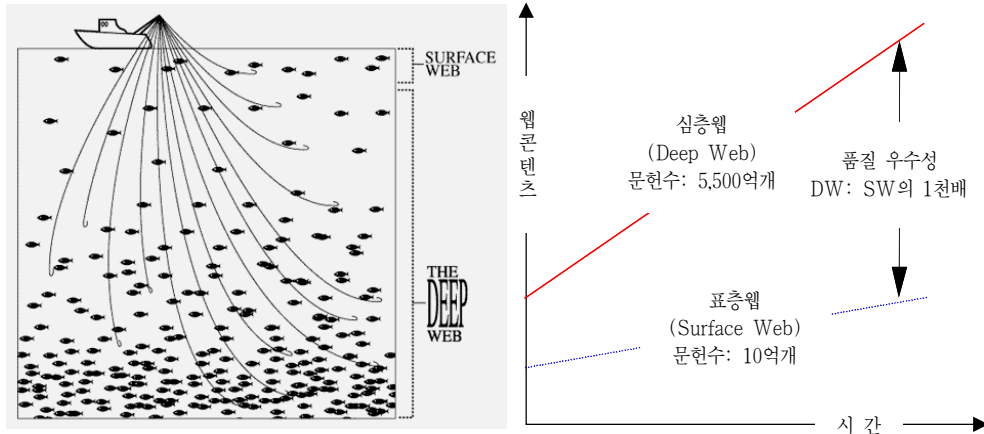
먼저 도서의 디지털 지형은 생산 및 유통시점에서의 디지털 버전(born digital)과 인쇄형의 디지털 버전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중을 위한 디지털 도서, 즉 국내의 E-book 시장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공공도서관이 개발할 대상도 많지 않은 편이다.

다음으로 대중잡지는 전자잡지, 인터넷 무료잡지, 오픈 액세스 잡지(Open Access Journal), 파일단위(preprint, postprint) 등의 다양한 변종이 유통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인쇄잡지의 디지털 버전인 전자잡지는 라이선스 계약과 온라인 접근환경을 구축하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유통되는 무료잡지, 오픈 액세스 잡지, 잡지의 논문파일은 적극 개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제로상태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자원은 대상과 범주를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고 지형도 계속 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웹 구조는 〈그림 3〉처럼 표층웹(surface or visible web)과 심층웹(deep, hidden, invisible web)으로 양분되며, 후자에 존재하는 정보량이 전자의 550배에 달하고 품질도 1,000배 이상 우수하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Yahoo나 Google 등의 검색엔진으로 심

2) BrightPlanet.com LLC, *The Deep Web : Surfacing Hidden Value*(July 2000), pp.2-4.
 〈<http://www.dad.be/library/pdf/BrightPlanet.pdf>〉.

층웹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비율은 0.03%에 불과하며, 유능한 탐색자가 최대 검색엔진을 동원하더라도 표층웹에 탑재된 콘텐츠의 약 16%에만 접근할 수 있다.³⁾



〈그림 3〉 표층웹과 심층웹의 지형(좌)과 콘텐츠 비교

따라서 어느 공공도서관도 지구촌 또는 자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고품질의 인쇄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없듯이 이용가치가 높은 인터넷 정보자원으로 한정하더라도 누락없이 개발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를 인정하면서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데, 공공도서관은 주제별로 대표적인 서지 및 전문DB, 회색문헌(보고서, 회의자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등), 파일단위의 논문(오픈 액세스 논문), 단편적 지식정보(통계DB, 조사데이터, 법령정보, 지도자료, 정책문서 등), 저명사전과 시소러스, 특수자료(회귀자료, 절판자료, 향토자료), 도서관 OPAC, 기관레포지터리, 디지털 도서관, 출판사·벤더 및 서점DB, 각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파일링 등을 디지털 장서개발의 대상으로 삼을 때 심리적 내지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Ⅲ.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1. 고전적 정론의 현실적 한계

19세기 중반 이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공

3) Bonnie Shucha, "Conquering the Invisible Web,"
 <<http://library.law.wisc.edu/wisblawg/conqueringinweb.ppt>>.

공도서관에 부여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원칙과 이론이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대다수는 오늘날 장서개발의 고전적 정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정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공공도서관이 등장한 이후의 공비성, 공개성, 무료 이용성은 설립과 운영의 이념적 주축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모든 자료의 공개와 무료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전적 정론은 미소장 자료의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ILL/DDS) 등에 수익(혜)자 부담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납세주체인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소위 '요구론 중심의 선택론'도 고전적 정론을 대표한다. 그러나 베스트 셀러의 대량 요구로 인한 쓰레기 창고화, 외설자료나 만화 등에 대한 지나친 요구나 양적 평가논리가 초래하는 장서의 질적 피폐화 등은 정론의 한계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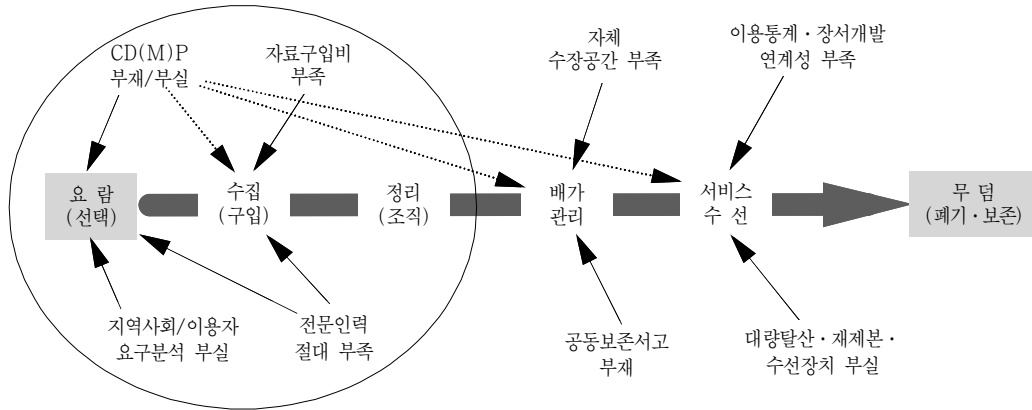
셋째, 모든 공공도서관은 자급자족형 장서개발을 중시하여 왔다. 이 원칙 역시 구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족시킬 수 없는 고전적 정론의 한계에 속한다. 설령 자료구입비가 충분하더라도 모든 공공도서관이 대상자료의 가치나 요구를 분석하여 수집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 괴리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모든 행위는 정교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or Management Policy)은 공식적인 계획문서인 동시에 실무준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이 정론이다.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CD(M)P를 문서화하여 장서개발의 실천적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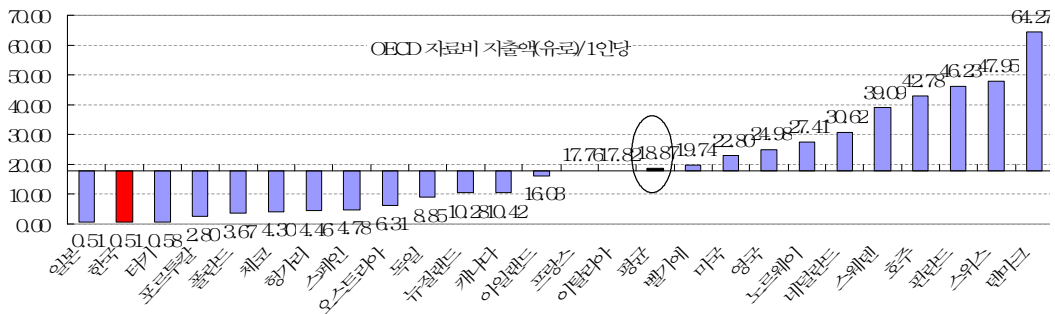
다섯째, 불특정 대중을 봉사대상으로 삼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정보수요 등을 조사하고 대출경향을 분석하여 장서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대출업무를 단순 반복적 창구업무로 간주함으로써 이용통계와 장서개발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후광효과로 나타난 일본의 사례가 대출업무의 아웃소싱이다. 모든 공공도서관의 제공서비스는 충실한 장서구성에서 발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용데이터가 장서개발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부정합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고전적 정론이 아날로그 장서개발에서 드러내는 현실적 한계를 간추리면 <그림 4>와 같다. 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장서관리로 확대하여 요람(선택)에서 무덤(보존, 폐기)까지로 간주할 경우에 대다수 설문조사에서 '읽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용자의 불만이 계속되는데 '왜 공공도서관은 장서개발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 이구동성으로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을 거론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정 부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ECD 국가의 인구 1인당 자료비, 소장책수와 연차증가량을 각각 비교한 <그림 5 ~6>을 보면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논리로

접근하면 자료구입비의 절대 부족이 장서개발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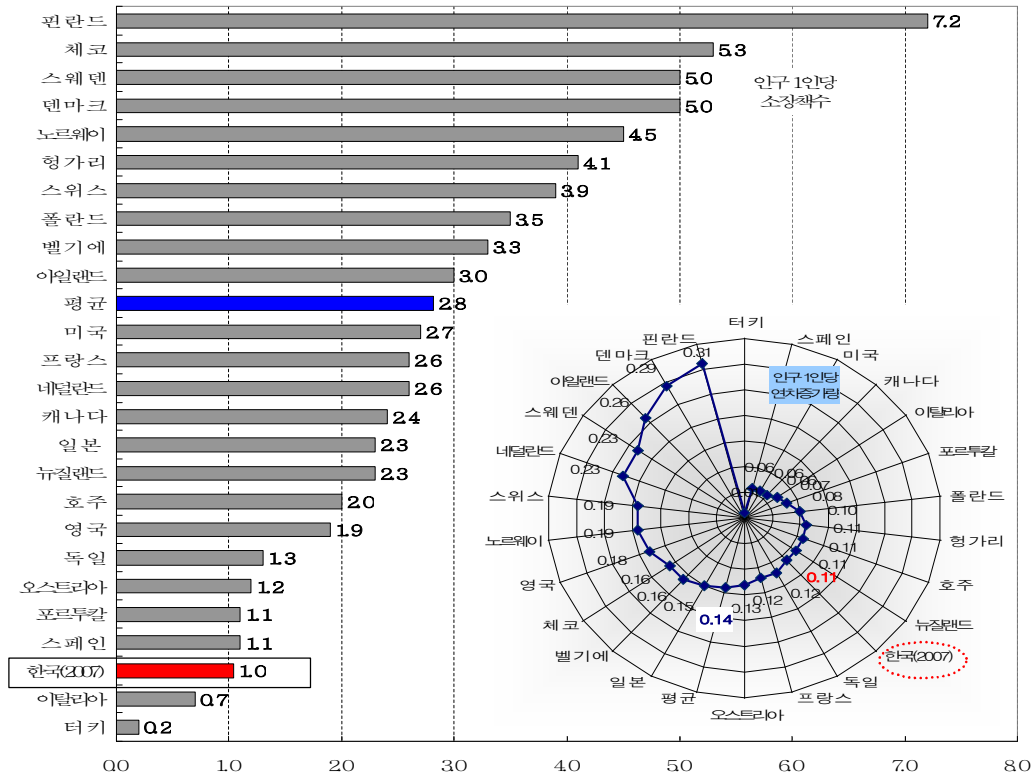
〈그림 4〉 아날로그 장서개발의 스펙트럼과 현실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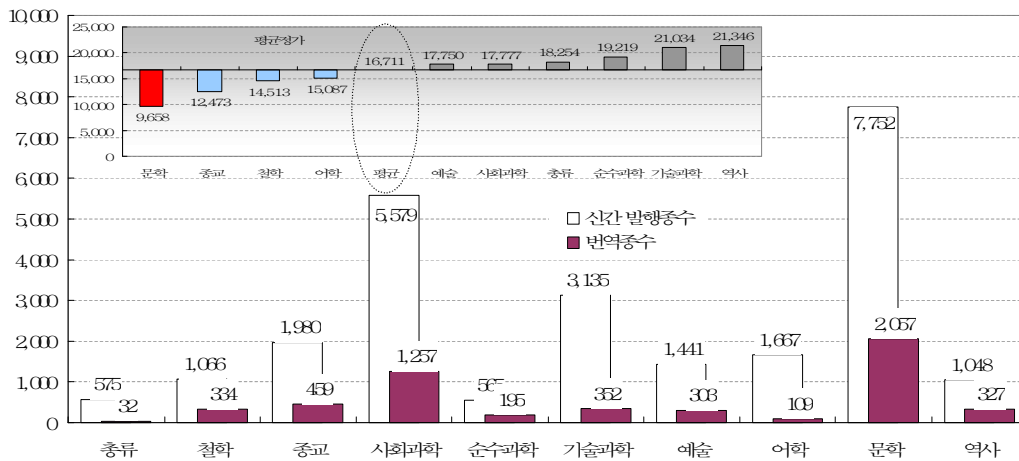
〈그림 5〉 OECD 국가의 인구 1인당 자료지출비(2001년 기준, 단위 : 유로)

그러나 2007년도 국내 신간의 주제별 발행종수와 평균 단가, 1개관당 평균 자료구입비를 도시한 〈그림 7〉을 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부연하면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대상이 국내에서 발간된 도서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더라도 1개관당 연간 6,500종(1개관당 평균 자료구입비 8,756만원÷1종당 평균단가의 80%)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4년간(2004~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총예산 중 자료구입비 배정비율의 변화추이, 2007년도 광역시도별 1개관당 평균 자료구입비 및 총예산 중의 배정비율을 비교한 〈그림 8〉을 보면 OECD의 평균인 15% 내외보다 훨씬 낮다. 요컨대 경기, 강원, 제주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도서관 총예산의 항목별(인건비, 자료비, 기타 제경비) 배정비율에서 자료구입비 배정의 파행이 인구 1인당 소장책수와 연차증가량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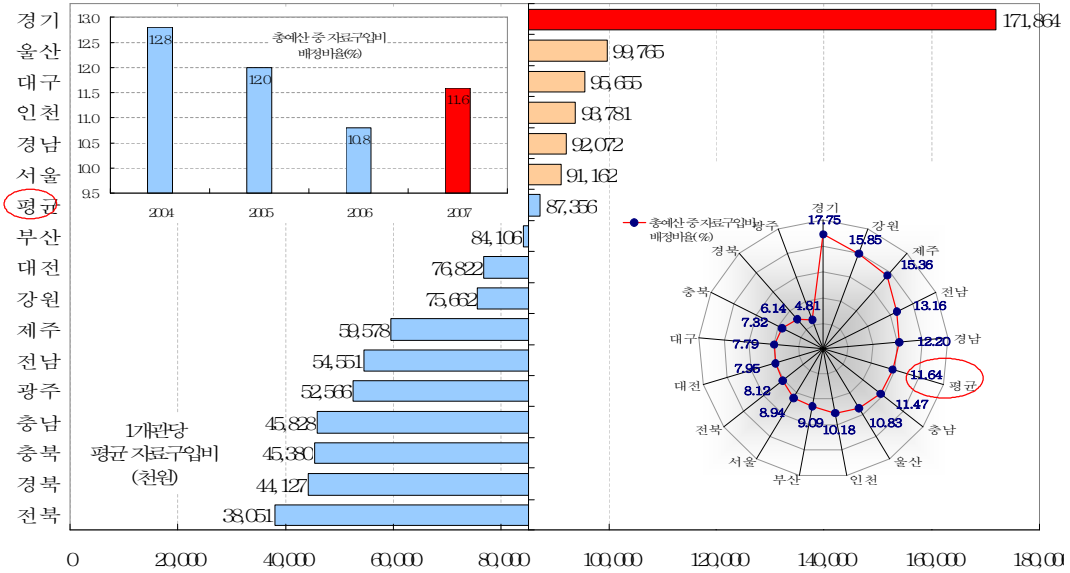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그림 6〉 OECD 국가 공공도서관의 인구 1인당 소장책수와 연차증가량 비교



〈그림 7〉 2007년 국내 신간의 주제별 발행(번역)종수와 평균 정가



〈그림 8〉 국내 공공도서관 1개관당 자료구입비 및 총예산 중의 배정비율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하면 장서개발이 충실해 질 것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전문인력 부족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제에 묶여 정규 인력의 부족문제를 위탁관리로 해결하려는 차제에 장서개발 인력의 충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주어진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서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 때 고전적 정론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서중심의 공공도서관 운영과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디지털 오디세이의 역설과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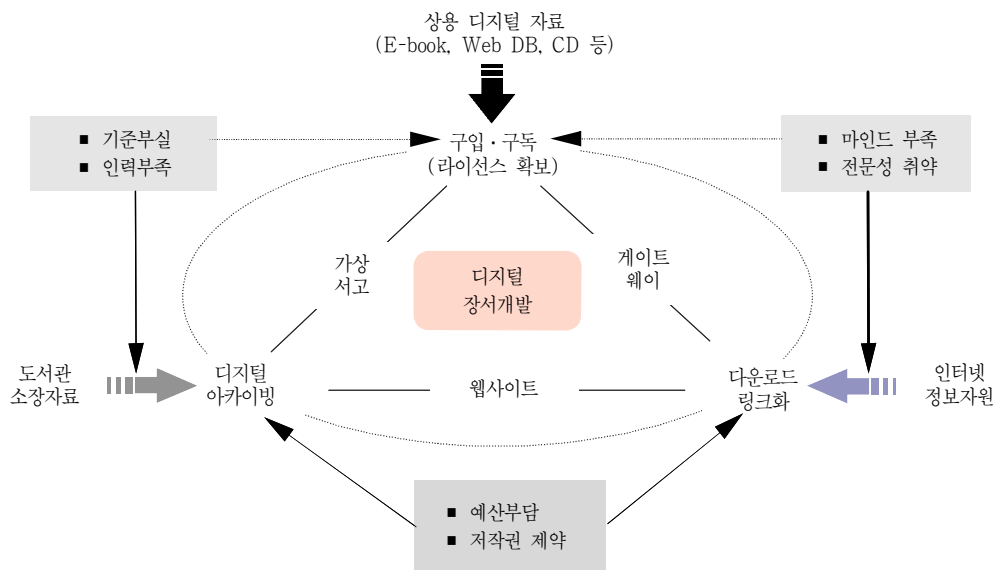
고전적 장서개발론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인터넷 등장과 디지털 정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서관계가 선택한 대안이 접근패러다임으로 각색한 디지털 오디세이(Digital Odyssey)⁴⁾이다. 이 용어는 대중 문화계가 모성(회귀) 본능, 도전과 모험, 미지의 세계 등을 동경하는 현대인의 심리에 주목하여 즐겨 차용하는 것으로서, 도서관계도 동일한 맥락에서 장서개발의 고전적 정론을 포기하지 않은 채 디지털 접근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4) 오디세이는 기원전 700년경에 호메로스가 쓴 세계 최고의 서사시로서, 그리스 문화의 원형인 동시에 서양 정신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줄거리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던 오디세우스가 종전 후에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귀향하는 과정에서 겪는 파란만장한 모험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공공도서관이 비트자료의 중요성과 디지털 장서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장서는 도서관 서버에 축적된 다종다양한 비트정보의 집성체, 즉 디지털 자료를 지칭하지만 그 범주를 확대하면 온라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E-book, 웹DB, 전자잡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장패러다임을 기준으로 하면 대다수 유료형 디지털 전문DB는 출판사나 중개기관의 서버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장서로 간주하기 어려운 반면, 접근패러다임에 입각하면 라이선스 확보방식의 전자잡지나 웹DB도 디지털 장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을 대표하는 사례가 전자잡지의 디지털 아카이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계는 <그림 9>처럼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상용 디지털 자료의 라이선스 확보, 웹정보의 다운로드와 링크를 디지털 장서개발의 핵심전략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디지털 형태로 생산·유통되는 정보자원 중에서 이용 및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장서에 편입시키고 접근성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지식정보 거점과 정보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 및 입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장서개발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디지털 장서개발의 삼각구도와 현실적 제약

먼저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여러 국가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이며, 대학도서관도 학위논문, 대학출판물, 문서자료, 마이크로자료 등을 디지털 형태로 축적하여 dCollection, dSpace 등을 구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도 희귀서와

귀중서, 특성화 자료, 향토자료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장서를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및 인력부족, 표준기술의 부실, 저작권이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용 디지털 자료의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연간 이용권을 보장받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디지털 장서개발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개 장서개발의 차원에서 오프라인 자료(CD-ROM DB 등)는 구입방식으로 소장기능을 강화하는 반면에 온라인 자료(서지DB, 전자잡지, E-book)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접근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도서관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 마인드와 전문성의 취약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의 고품질 정보자원을 다운로드 및 링크방식으로 공공도서관 서버에 축적하는 방식이 있다. 다운로드 방식은 디지털 회색문헌(보고서, 법규와 기준, 정책자료, 통계자료, 회의자료, 아동학습자료, 논문자료 등)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정보(건강, 법률, 여행, 지리, 세무 등)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반면에 링크화(북마크)는 저작권 침해나 파일의 대용량성 등을 이유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가장 소극적인 전략이지만 게이트웨이나 포털사이트로서 기능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디지털 장서개발의 삼각구도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디지털 오디세이를 신화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장서개발은 온라인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날로그 장서개발을 대체한다는 오류가 자주 목도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인쇄자료의 디지털 버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설령 디지털 버전이 존재하더라도 여러 제약요소 때문에 모두 개발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신화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디지털 접근(이용)권의 확대가 장서개발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디지털 아카이빙은 별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오류다. 공공도서관이 주로 채택하는 E-book 및 패키지형 DB의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성의 충분조건일 뿐,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디지털 장서개발은 아날로그형 장서의 한계를 접근성으로 보완하는 전략이다. 게다가 현재의 대다수 개발행위는 당대의 접근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후대의 접근성을 담보할 디지털 아카이빙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그 결과로 보존기능을 핵심가치로 상정하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 약화될 것이므로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넷째, 어느 국가나 국제기구를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장서평가의 양적 핵심지표는 인구 1인당(또는 1천명당) 소장책수와 연차증가량이며, 질적 핵심지표는 연간 장서대체율, 즉 장서의 신선도 내지 회전율이다. 그런데 디지털 장서개발은 양적 지표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전적 장서개발론의 전향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다섯째, 디지털 장서개발은 지역주민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도서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것은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입수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편의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회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기대심리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장서개발이 충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신화에 해당한다.

여섯째, 디지털 장서개발은 미래의 공공도서관을 디지털 인터페이스, 논리적 게이트웨이, 정보공유지로 규정하는 인자에 속한다. 그러나 아날로그 자료의 시공간적 제약보다 더 심각한 디지털 장벽(저작권 제약, 기술적 유동성, 예산부담)이 도서관계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세이는 신화로 둔갑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일곱째, 디지털 장서개발은 새로운 지식정보와 기술환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장서개발보다 더 복잡하고 고단한 과정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장서개발의 이원화 및 이중성에 따른 과부하, 모집단(개발대상) 설정의 어려움과 방대성, 디지털 자료의 다양한 속성과 유통구조, 진본과 변종에 대한 판단기준의 애매성, 예산부족과 배정기준의 미비, 라이선스 계약의 실무적 및 법적 문제, 아카이빙 전략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한계, 비용 대 편익의 경제성 평가 부재 등이 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지상주의가 배태하는 신화성 담론 가운데 주목할 내용은 '인터넷이 도서관을 대체한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있다', '디지털 시대인데 계속해서 책을 살 필요가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극단적 담론은 궤변에 가깝지만 그 상당한 빌미를 도서관계가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자성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유통이 현실화되자 공공도서관계도 이구동성으로 디지털 접근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인터넷을 지식정보의 저수지로 간주하면서도 통제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디지털 장서개발에 인색하였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인터넷이라는 판도라 상자 속의 웹정보를 '강 건너 불' 정도로 인식하거나 장서에 편입시키는데 소홀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생태계에서의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3. 미래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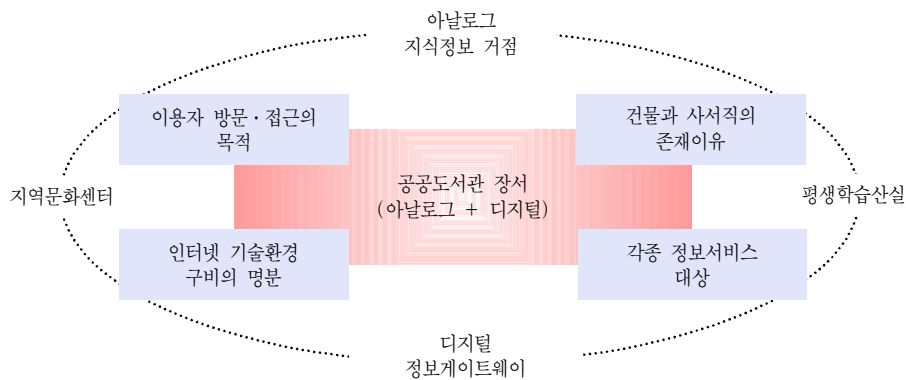
아날로그 장서개발의 한계가 분명하고 디지털 오디세이에도 거품성 신화가 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주력해야 할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당위와 현실, 명분과 실리, 이론과 실무 등에서 괴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적 역할과 존재이유에 대한 도서관계와 지역주민의 인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공공도서관을 문화 인프라의 중핵시설로 간주하는 반면에 대중은 여러 문화기반 시설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이러한 간극을 좁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단순 영조물 또는 문화시설의 부분집합에서

지식정보의 거점 내지 합집합의 정수리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개체수 및 구성요소(인력, 장서, 예산)의 확충, 시스템 구축과 협력기능의 강화, 서비스 역량제고, 행정체계 일원화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장서가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인자이기 때문에 장서개발의 충실화에 주력하지 않는 모든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만약 실물구축을 배제한 접근전략에 더 치중한다면 공공도서관을 인터넷 내지 웹사이트로 개칭하더라도 반박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과 공간, 고성능 컴퓨터시스템, 유비쿼터스 환경, 유능한 전문인력을 갖추더라도 장서구성이 충실하지 못하면 화려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부족한 자원과 대중적 지지기반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장서개발을 통한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문화기관 중에서 비교우위의 위상과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선정립과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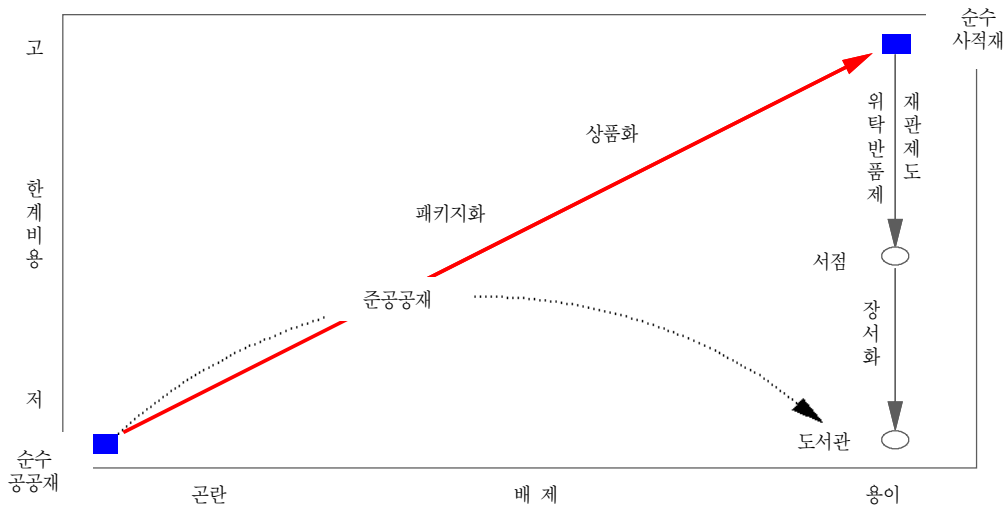
우선 장서와 공공도서관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서는 기록매체의 역사성, 누적성, 체계성을 함축하며, 그 결과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정당화된다. 이를 구체화한 <그림 10>을 보면 장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과 사서직이 필요하고,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접근하며,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 기술환경 구비의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서에서 배태되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 지식정보 거점, 평생학습산실, 디지털 정보게이트웨이, 지역문화센터 등이다. 따라서 장서개발이 부실하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도 약화되거나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림 10> 장서와 공공도서관 정체성의 상관관계

둘째, 모든 공공도서관은 최적의 아날로그 장서개발과 그것의 공공성 강화를 장서개발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오늘날 도서관계와 전문직은 이용서비스를 장서개발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며, 실제로 이용자 만족을 지상명제로 간주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더 냉정하게 음미하면 ‘장서개발이 부실한데 어떻게 이용자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물자료보다 라이선스형 웹DB에 주력하고 ILL/DDS로 미소장 자료를 해결하려는 발상도 지극히 미봉책이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자료를 대표하는 도서 그 자체는 <그림 11>처럼 한계비용이 낮고 비배제성을 내포한 순수 공공재이지만, 이를 상품화하여 출시하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작용하는 사적재로 변하고 다시 도서관이 구입·축적하면 비경합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위치, 개방시간, 이용규정 등을 감안하면 배제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장서의 재화적 성격은 비경합성을 보유하는 반면에 비배제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준공공재에 해당한다.⁵⁾ 이처럼 당초 공공재인 도서가 장서에 편입되면서 준공공재로 변질되므로 공공도서관의 성격도 그에 준할 수밖에 없어 아날로그 장서개발이 부실하면 장서와 도서관의 공공재적 성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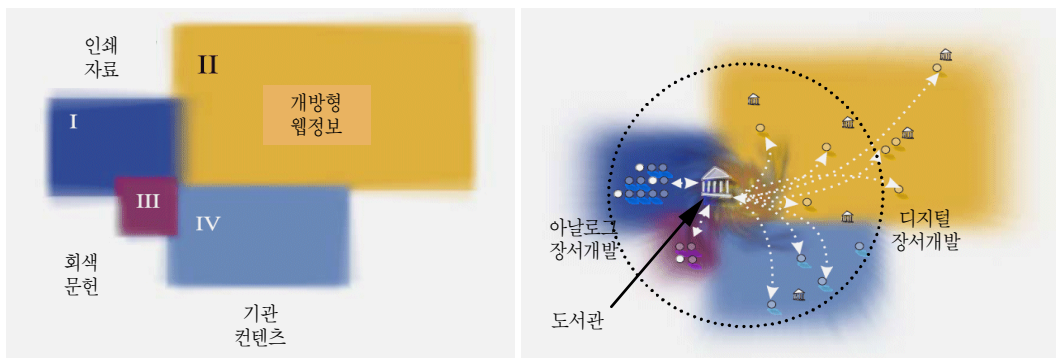


<그림 11> 도서, 장서, 도서관의 재화적 성격과 변질과정

셋째, 고전적 장서개발의 정론이 직면하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면 아날로그 장서개발을 기본노선으로 설정하더라도 디지털 정보자원의 선별적 개발이 불가피하고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정보계에서 아날로그 자료(인쇄형 및 회색문헌)의 지형이 디지털 정보(개방형 웹정보, 기관 콘텐츠)보다 훨씬 좁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도서관이 아날로그 자료와 웹정보의 경계선에 위치하므로 디지털 장서개발이 배제될 경우에 지식정보 거점이라는 위상도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인터넷 정보자원과 접근패러다임을 강조하는데

5) 윤희운, “공공도서관 경영형태 변용성 연구,” 한국문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07. 12), p.12.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자료의 포장관리(수집과 보존)에 디지털 정보의 내용관리(선택적 개발과 아카이빙)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층웹에 존재하는 고품질의 디지털 정보를 아카이빙과 링크방식으로 개발하여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공공도서관도 인터넷 장서개발에 소홀할 경우,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는 본질적 정체성이 배제된 디지털 아바타(Digital Avatar)에 불과하다. 그것은 또 다른 디지털 신화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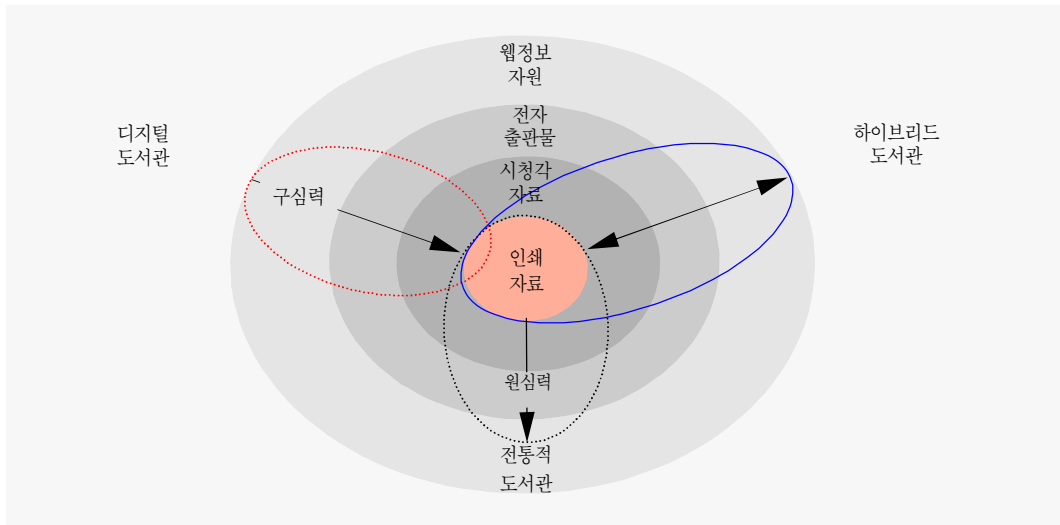
〈그림 12〉 지식정보 생산비중과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지향성

넷째,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정보를 결합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형이하학적 모형은 〈그림 13〉과 같다. 부연하면 중점의 인쇄자료에서 외곽의 웹정보까지 내적 충실화와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내부의 원은 모든 공공도서관이 실물소장에 치중하고 무료 봉사하는 미시적 장서구성인 반면에 외곽을 구성하는 원은 전자출판물과 웹정보의 선택적 접근서비스를 강조하는 거시적 장서구성을 말한다. 따라서 아날로그 장서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외연을 디지털 정보로 확장하면 전통적 도서관으로, 디지털 장서개발을 우선하되 인쇄자료로 보완하면 디지털 도서관으로, 그리고 양자를 동시에 강조하면 하이브리드 도서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요컨대 아날로그 장서개발을 요체로 삼는 확산형 장서구성은 소장기능과 그것의 원심력을 중시하는 반면에 디지털 장서개발을 우선하는 수렴형 장서구성은 접근기능과 그것의 구심력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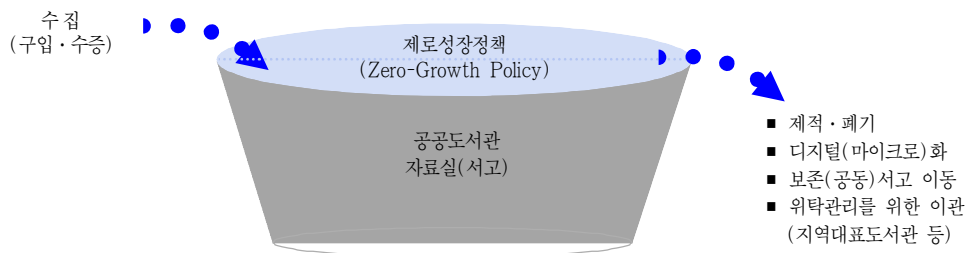
다섯째, 모든 공공도서관의 아날로그 장서개발은 일반도서, 대중잡지, 향토자료, 아동도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도서(확대도서, 디지털 녹음도서, 점자도서, 비디오 및 DVD 도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장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 장서개발은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야기하므로 IFLA/UNESCO 권장기준(인구 1인당 1.5 ~ 2.5권)⁶⁾에 도달하면 다다익선을 강조하는 양적 확충을 질적 충실화 및 최신성 강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 권장기준을 충족시키는

6) Philip Gill et. al.,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München : Saur, 2001), pp.56-60.

상황이 도래하면 <그림 14>처럼 제로성장정책(Zero-Growth Policy)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적·폐기,⁷⁾ 디지털화, 보존서고로의 이동, 공동보존서고 건립, 지역대표도서관 위탁관리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형이하학적 모형



<그림 14>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제로성장정책 개념도

여섯째, 디지털 장서개발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 정보자원은 총량을 추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날로그 장서개발의 범주를 준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요컨대 다양한 디지털 정보 중에서 서지DB, E-book과 참고도서, 전자잡지, 디지털 회색문헌(보고

7) 2007년 12월 6일자로 고시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문화관광부고시 제 2007-37호)는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학위논문, 회의자료, 통계DB, 무료잡지 등) 등을 대상으로 설정하되 봉사대상별(성인, 노인, 아동, 학생, 장애인)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장서개발의 과정과 서비스 경로는 아날로그 장서개발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는 '요람(선택)에서 무덤(보존)까지'의 제기능이 분절형과 순차성을 가지며 '구입(구독) = 접근 = 보존'을 의미하는 반면에 전자는 '개발에서 접근'까지의 통합성과 동시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개발 = 접근 ≠ 보존'을 의미한다.⁸⁾ 예컨대 디지털 라이선스의 확보로 즉시적 접근·이용은 가능하지만, 로컬 아카이빙의 허용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래의 접근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공공도서관은 실물소장과 원격접근을 상보성 패러다임으로 간주하여 하이브리드형 장서를 개발하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이트(digital gateway site)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날로그 자료의 체계적 개발에 못지않게 디지털 정보자원을 유형별, 주제별, 집단별로 세분하여 다운로드 및 링크방식으로 개발하고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주제별, 자료유형별, 봉사대상별(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로 세분하여 각각 제공하되, 연계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래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는 이분법적 사고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아날로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한 서고,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축적한 서버, 그리고 양자를 연계한 게이트웨이 사이트는 공공도서관 핵심역량의 원천이며, 지식정보의 타입캡슐과 논리적 게이트웨이로서의 위상을 보증한다. 따라서 아날로그 자료의 수집·보존기능을 중시하지 않는 공공도서관은 '고답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장서개발과 아카이빙을 외면하는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모형은 역사성과 체계성을 겸비한 장서에서 발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서개발은 모든 공공도서관이 가장 중시해야 할 전문직 업무이다. 이에 국내외 공공도서관계가 금과옥조로 삼는 고전적 장서개발의 정론이 직면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오디세이의 신화를 논급한 다음에 미래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고전적 장서개발은 아날로그 자료의 체계적 수집·제공·보존을 전제로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념적 지주(공비성, 공개성, 무료 이용성)와 수혜자 부담원칙의 충돌, 요구중심의 선택론이 초래하는 장서의 질적 피폐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에도 고수하는 자급자족형 장서개발의 논리, 계획문서인 동시에 실무준거인 장서개발정책의 부재, 이용통계와 장서개발

8) 윤희윤,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83.

의 연계성 부족 등이 고전적 정론의 한계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오디세이는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상용 디지털 자료의 라이선스 확보, 웹정보의 다운로드와 링크 등을 통하여 접근패러다임을 내면화하는 심리를 말한다. 그러나 디지털 버전은 소수에 불과하고 모두 개발할 수 없다는 점, 디지털 접근권 확대가 장서관발인지에 대한 논란, E-book 및 패키지형 DB의 라이선스 계약이 디지털 아카이빙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후대의 접근성을 위한 아카이빙 기능의 취약성, 핵심 장서지표(1인당 소장책수와 연간 대체율)의 중요성 약화, 디지털 장벽(저작권 제약, 기술적 유동성, 예산부담)의 심화 등이 디지털 장서관발을 신화로 둔갑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장서관발의 한계와 디지털 오디세이의 신화를 극복하기 위한 장서관발의 새로운 노선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장서와 공공도서관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시적,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공공도서관은 최적의 아날로그 장서관발과 공공성 강화를 장서관발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아날로그 자료의 포장관리(수집과 보존)에 디지털 정보의 내용관리(선택적 개발과 아카이빙)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정보를 결합하여 내적 충실화 및 외연 확장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아날로그 장서관발은 일반도서, 대중잡지, 향토자료, 아동도서, 장애인 도서 등에 우선순위를 핵심장서를 구축하되 국제 권장기준에 도달하면 제적·폐기, 디지털화, 보존서고 이동, 지역대표도서관 위탁관리 등을 통한 제로성장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디지털 장서관발의 대상은 서지DB, E-book과 참고도서, 전자잡지, 디지털 회색문헌 등으로 설정하되 봉사대상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물소장과 원격접근을 상보성 패러다임으로 간주하여 하이브리드형 장서관을 개발하고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이트를 구축하되, 특히 주제별, 자료유형별, 봉사대상별로 세분·제공하되, 연계형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 핵심역량은 아날로그 자료의 보존서고,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의 서버, 그리고 양자의 게이트웨이 사이트에서 발원하며, 지식정보의 타입캡슐과 게이트웨이로서의 위상을 보증한다. 따라서 아날로그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기능을 중시하는 동시에 디지털 장서관발과 선별적 아카이빙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